

한국인 사회의식
심층분석 보고서

Kstat Report

73호 || 2023년 4월 27일

친환경 실천의식과 장애요인 분석

■ 일회용품, 플라스틱 쓰레기 책임성

- _ 국민들, 플라스틱 쓰레기 정부책임성 의견 늘어
- _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 방안, 정부 기술 개발·지원 꼽아

■ 친환경 실천 참여 의향과 현실

- _ 국민들, 일회용품·포장폐기물 감축 실천 의향 높아
- _ 실천 의향 높지만, 일부 제안 '현실성' 낮다고 생각
- _ 참여의향 높음 & 현실적 제안, 계층별 응답 현황
- _ 참여의향 높음 & 비현실적 제안, 계층별 응답 현황
- _ 참여의향 낮음 & 비현실적 제안, 계층별 응답 현황

■ 포장폐기물 줄이기 정책 평가

- _ 포장폐기물 감축 정책, 모두 '효과적'으로 생각
- _ 성/연령별 : 2030세대 중에서 여자 30대 가장 긍정적
- _ 4060세대, 2030세대보다 정부정책 긍정평가
- _ 삶 평가지수별 : '번창중' 긍정평가율 특히 높아
- _ 주관적 이념별, 큰 차이 없어

Kstat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3년 4월 7일(금) ~ 4월 9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9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2.97\%$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3년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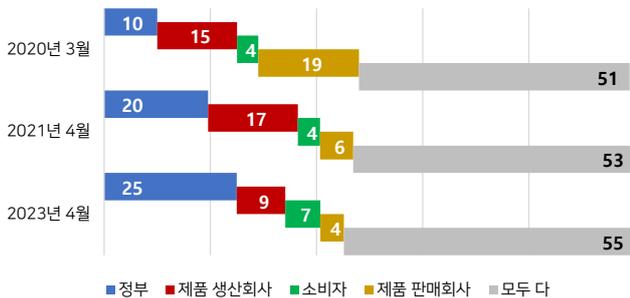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일회용품, 플라스틱 쓰레기 책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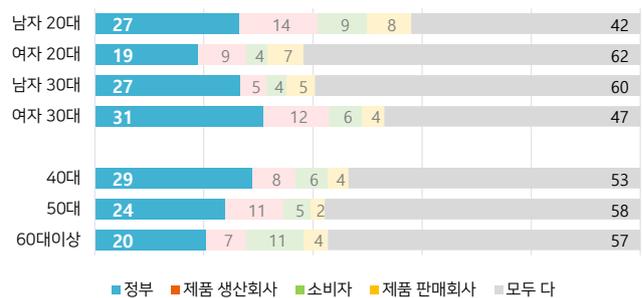
국민들, 플라스틱 쓰레기 정부 책임성 의견 늘어

- 플라스틱 포장, 비닐 봉투 및 기타 재활용할 수 없는 일회용 물품이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데 대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늘고 있음
 - “우리사회는 여전히 플라스틱 포장, 비닐 봉투 및 기타 재활용할 수 없는 일회용 물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이러한 상황이 다음 중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후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마트 등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정부’, ‘소비자’, ‘모두 다’ 등의 보기를 제시한 결과임
- 응답 추이를 보면 ‘모두 다’라는 응답이 50%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제품 생산회사’와 ‘제품 판매회사’의 책임성은 줄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정부’ 책임성이 늘었음
 - ‘제품 생산회사’ 15%(2020년) → 9%(2023년) / ‘제품 판매회사’ 19%(2020년) → 4%(2023년)
 -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정부’ 10%(2020년) → 25%(2023년)
- 이번 2023년 4월 조사결과를 계층별로 살펴보더라도, 모든 계층에서 ‘정부’ 책임성 의견이 높음

플라스틱 쓰레기 책임성 평가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플라스틱 쓰레기 책임성 평가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3.04.09조사,단위:%)



플라스틱 쓰레기 책임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단위:%)



플라스틱 쓰레기 책임성 평가 : 직업별,삶평가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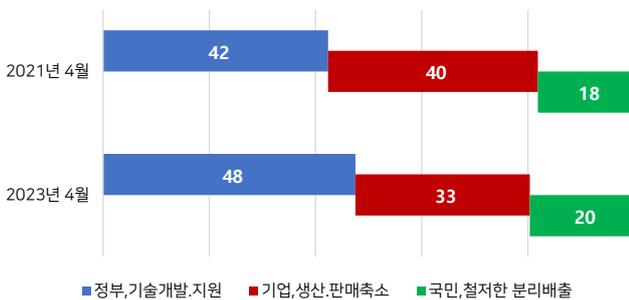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사회에서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높지만, 오히려 플라스틱 쓰레기는 늘어나고 있음
 - : 우리 국민들은 환경문제 중 ‘소비재 과대포장’과 ‘쓰레기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함(케이스탯 리포트 25호 『환경문제와 쓰레기 관련 국민의식 분석』 참고)
 - : 하지만 실제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증가함(2021년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2017년 대비 50% 증가, 자료 : 그린피스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
- ☑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소비자보다 정부가 관리.감독 등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여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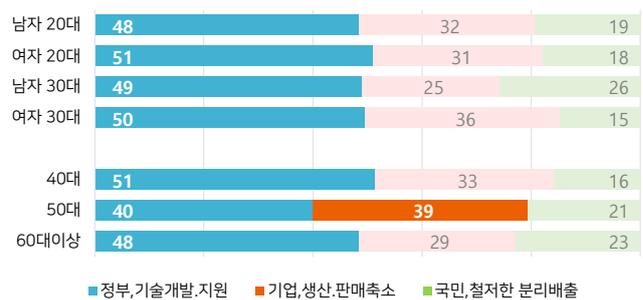
□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 방안, 정부 기술 개발·지원 꼽아

- 국민들이 생각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감축 방안은 ‘정부의 쓰레기 재활용 기술 개발 및 관련 회사 지원 확대’로 조사됨
 - “다음 중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후 ‘국민들의 철저한 플라스틱 쓰레기 분리 배출’, ‘정부의 쓰레기 재활용 기술 개발 및 관련 회사 지원 확대’, ‘기업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 및 판매 축소’ 등의 보기를 제시한 결과임
- 응답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정부의 기술 개발·지원’과 ‘기업의 생산·판매 축소’가 비슷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의 기술 개발·지원’이 더 높게 나타남
 - 2021년 4월, ‘정부, 재활용 기술 개발·지원’ 42% vs ‘기업 플라스틱 제품 생산·판매 축소’ 40%
 - 2023년 4월, ‘정부, 재활용 기술 개발·지원’ 48% vs ‘기업 플라스틱 제품 생산·판매 축소’ 33%
 - 한편, ‘국민, 철저한 분리배출’ 의견은 2021년과 비슷한 20%를 기록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전 계층에서 ‘정부의 쓰레기 재활용 기술 개발 및 관련 회사 지원 확대’가 우세함
 - 50대와 진보층은 ‘기업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 및 판매 축소’ 의견도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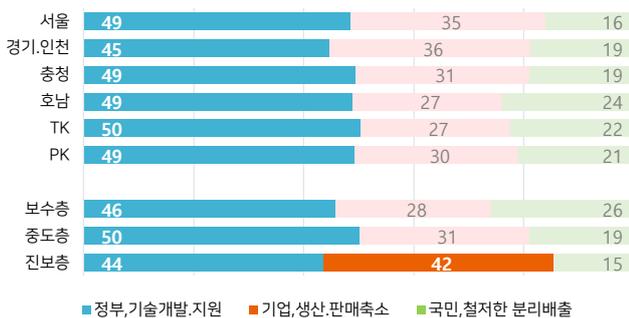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 중요 방안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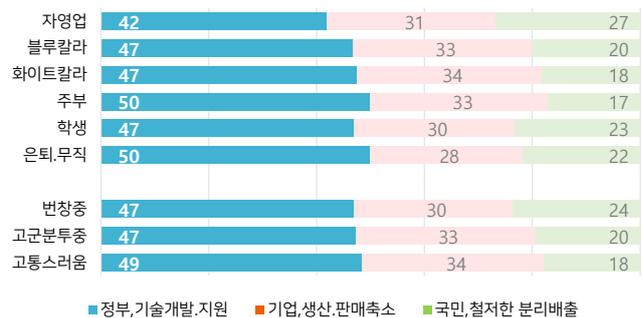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 중요 방안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3.04.09조사,단위:%)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 중요 방안 : 지역별,이념별 (단위:%)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 중요 방안 : 직업별,삶평가별 (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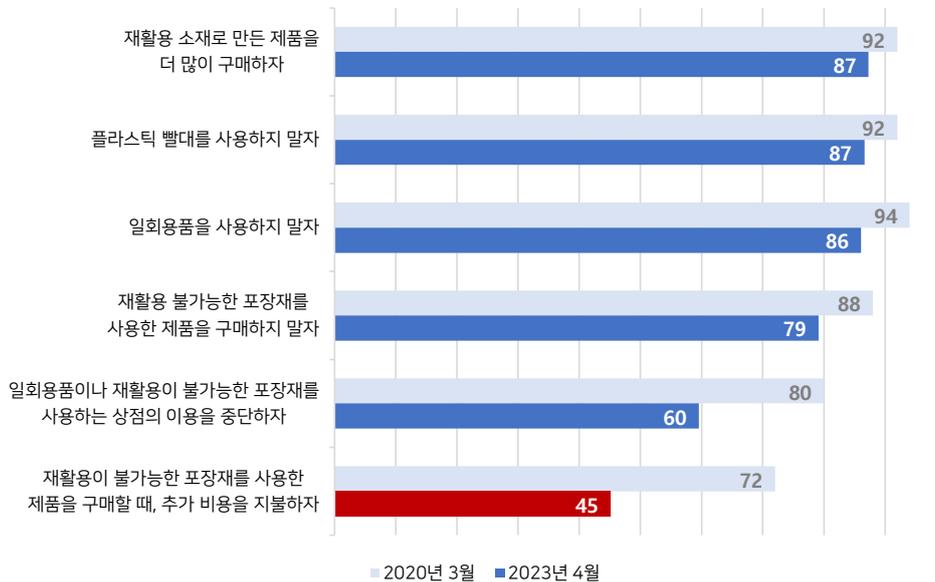
- ☑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유통단계 감축 → 국민 분리배출 → 재활용’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함
 - : 국민들은 생산·유통 단계에서의 기업 노력과 재활용 단계에서의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 국민의 철저한 분리배출 의견은 낮았는데, 이는 아무리 분리배출을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 때문으로 분석됨
 - : 특히 정부의 분리배출 정책에 따라 분리배출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재활용 비중이 낮은 현실에 대한 불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2020년 기준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률 60%,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21』)
 - : 이러한 불만은 또한 2021년에 비해 ‘정부의 재활용 기술 개발·지원’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아진 이유이기도 함

친환경 실천 참여 의향과 현실

국민들, 일회용품·포장폐기물 감축 실천 의향 높아

- 우리 국민들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일회용품과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이야기되는 다양한 실천 방안에 긍정적인
 - “다음은 일회용품 및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제안들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각각의 제안에 대해 참여하시겠어요, 참여하지 않으시겠어요?”라는 질문 후 각각의 제안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결과임
- 다양한 방안 중 ‘재활용 소재로 만든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자’와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말자’는 제안 참여 의향은 공히 87%로 매우 높음
 - 다음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86%),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구매하지 말자’(79%), ‘일회용품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상점의 이용을 중단하자’(60%)로 나타남
- 다만, 2020년 3월 조사와 달리 한 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참여 의향이 급격히 감소됨
 -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구매할 때, 추가 비용을 지불하자’는 제안은 2020년 3월 72%에서 45%로 급격히 줄어들음

일회용품·포장폐기물 줄이기, 제안별 참여 의향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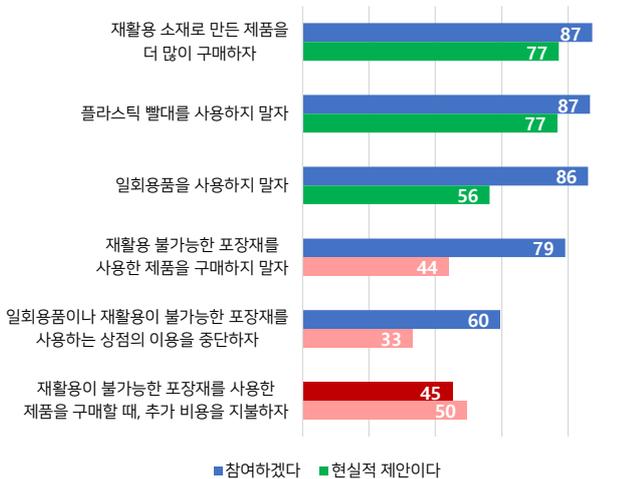
Kstat Point

- ☑ 전반적으로 일회용품·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실천 의향이 2020년보다 낮아짐
 -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리배출’ 등 국민 실천만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의 결과로 보임
- ☑ 특히 ‘재활용 불가능 제품, 추가 비용 지불’의 경우 참여 의향이 45%로 급락함(즉, 불참여 의향이 55%임)
 - : 이는 다른 제안에 비해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한 반발감 때문으로 분석됨
 - : 실제로 현재 제주도과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많은 반발을 낳고 있음
 - : 지금의 한계가 뚜렷한 재활용 시스템(기업과 정부의 책임성 약화)을 놔둔 채, 국민(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부과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으로 읽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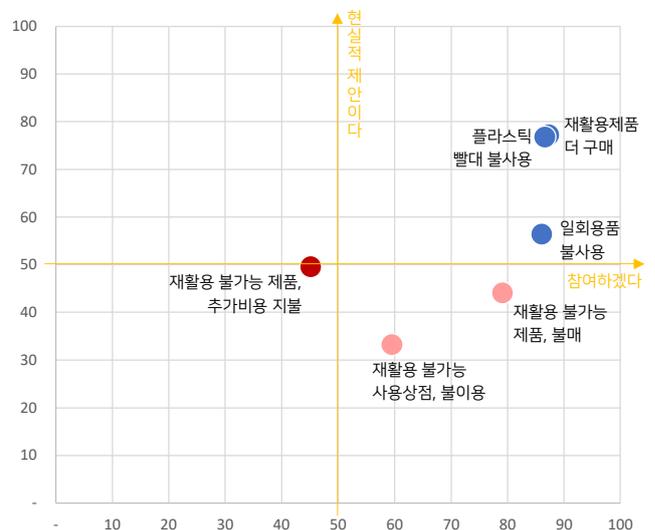
□ 실천 의향 높지만, 일부 제안 '현실성' 낮다고 생각

- 국민들에게 일회용품과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의 '현실성'을 질문한 결과, 일부 제안들은 '실천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제안'이라고 응답함
 - "그렇다면 각각의 제안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맞지 않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 후 '실천할 만한 현실적인 제안이다', '실천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제안이다' 중 응답토록 한 결과임
- '현실적인 제안이다'는 응답이 50%를 상회한 제안은 '재활용 소재로 만든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자'와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말자'가 공히 77%로 높게 나타남
 - 다음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가 56%로 조사됨
- 이에 비해 '현실적인 제안이다'는 응답이 50% 이하인 제안(즉, 비현실적인 제안)은 '일회용품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상점의 이용을 중단하자'가 33%로 가장 낮았음
 - 다음은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구매하지 말자' 44%,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구매할 때, 추가 비용을 지불하자' 50%임
- 제안별 참여 의향과 현실성 평가를 종합한 결과는 아래 우측 그림임
 - 참여의향 높음 & 현실적 : 재활용 제품 더 구매 / 플라스틱 빨대 불사용 / 일회용품 불사용
 - 참여의향 높음 & 비현실적 : 재활용 불가능 제품, 불매 / 재활용 불가능 사용상점, 불이용
 - 참여의향 낮음 & 비현실적 : 재활용 불가능 제품, 추가비용 지불

일회용품·포장폐기물 줄이기, 제안별 참여 의향 & 현실성 평가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제안별 참여 의향 & 현실성 평가, 종합 : 국민전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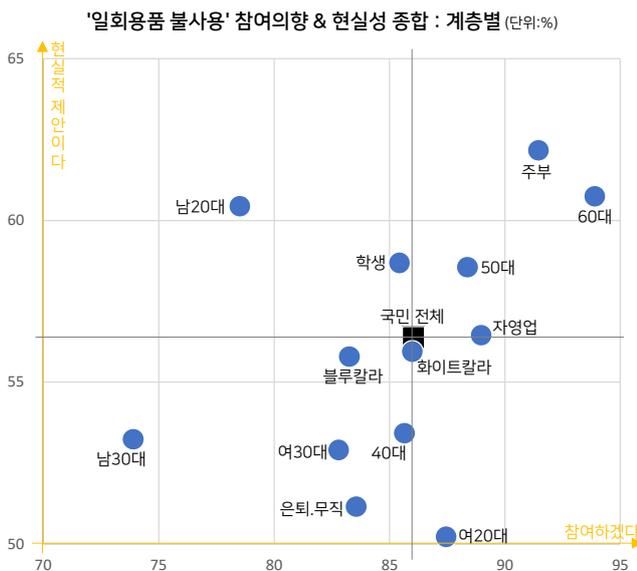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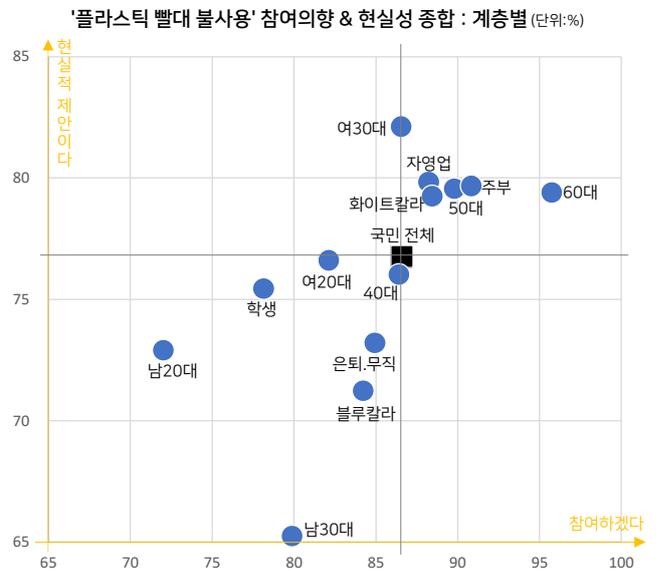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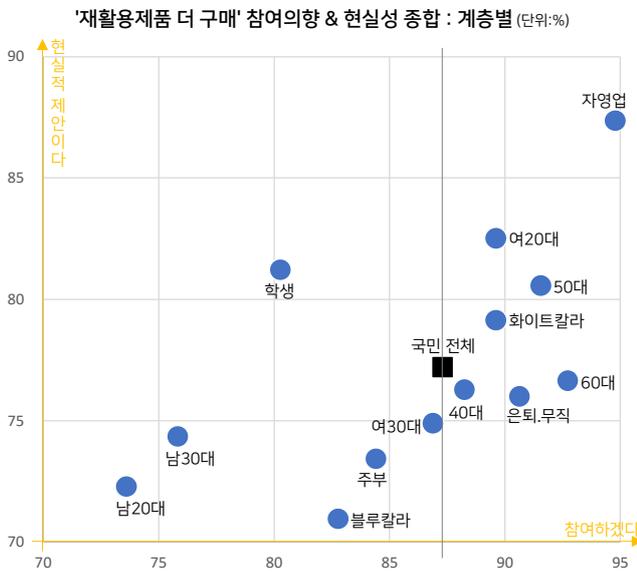


Kstat Point

- ☑ 일회용품·포장폐기물 감축을 실천하려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실천하기 어려운 방안이 있다는 의견이 주목됨
 - : '재활용 불가능 사용상점, 불이용'과 '재활용 불가능 제품, 불매'가 그것인데, 많은 상점과 기업이 일회용품·포장폐기물을 사용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
 - : 예를 들어 배달음식 주문시, 거의 모든 상점이 플라스틱 포장 배달을 하고 있어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 소비자, 즉 국민들이 일회용품·포장폐기물 감축 의향을 실천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지점임
 - : 국민여론은 기업·상점이 일회용품·포장폐기물 감축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것임
 - : 정부 입장에서, 국민적 실천(분리배출, 일회용품 보증금제도 등) 중심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임

□ 참여의향 높음 & 현실적 제안, 계층별 응답 현황

- 일회용품과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참여의향이 높고 현실적 제안으로 꼽힌 제안은 3가지임
 - '재활용 제품 더 구매', '플라스틱 빨대 불사용', '일회용품 불사용' 등임
- 이를 계층별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은데, 상대적으로 참여의향과 현실적 제안 의견이 일관되게 높은 계층은 △50대 △자영업자, 화이트칼라 계층임
-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의향과 현실적 제안 의견이 일관되게 낮은 계층은 △남자 30대 △블루칼라 계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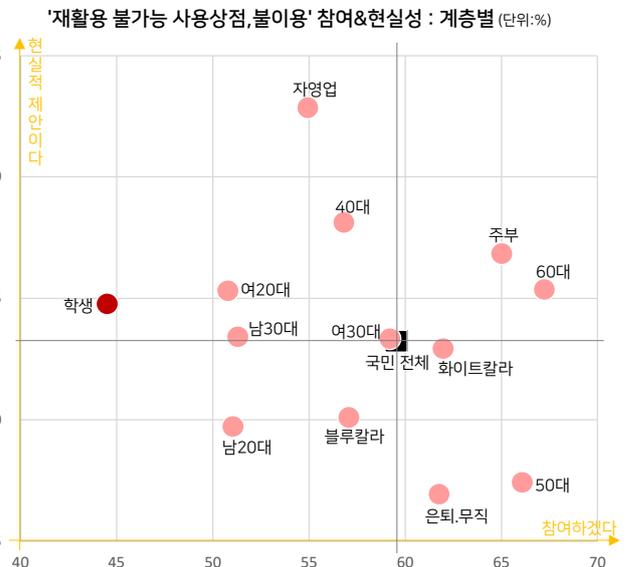


Kstat Point

- ☑ 참여의향만 놓고 보면 5060세대의 참여의향이 높고, 2030세대의 참여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음(40대는 중간수준) :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5060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참여의향 높음 & 비현실적 제안, 계층별 응답 현황

- 일회용품과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참여의향이 높지만, 비현실적 제안(현실적 50% 미만)으로 꼽힌 제안은 2가지임
 - '재활용 불가능 제품, 불매', '재활용 불가능 사용상점, 불이용' 등임
- 먼저 두 제안 모두 이를 계층별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은데, 상대적으로 참여의향과 현실적 제안 의견이 일관되게 높은 계층은 △여자 30대 △주부, 화이트칼라 계층임
 - 아래 그림에서 참여의향과 현실적 제안의견 모두가 50% 미만이면 붉은색 원이고, 둘 중 하나가 50% 미만이면 분홍색 원으로 표시함
- 이에 비해 특히 참여의향과 현실적 제안 의견이 일관되게 낮은 계층은 △블루칼라 계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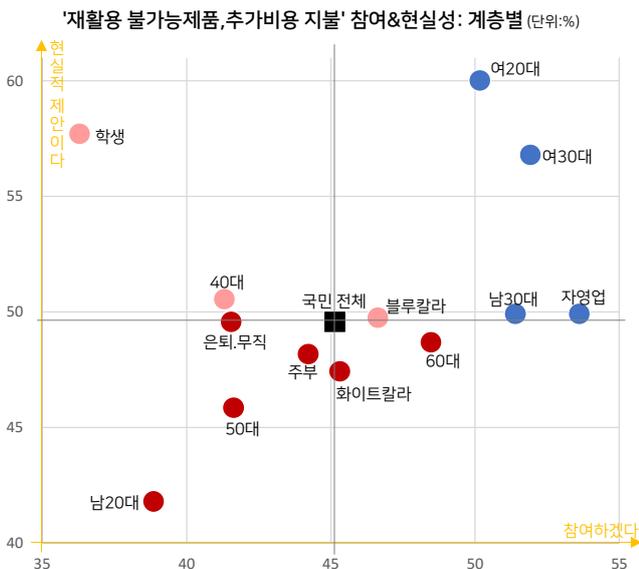


Kstat Point

- ☑ '재활용 불가능 제품, 불매', '재활용 불가능 사용상점, 불이용'은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 계층별로 살펴봐도 모든 계층에 걸쳐 현실성이 낮다고 생각함
 - : 이는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재활용 불가능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대부분이고, 또한 '재활용 불가능 사용상점'이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분석됨
- ☑ 한편, 참여의향만 놓고 보면 여자 30대와 4060세대가 상대적으로 높고, 남녀 20대와 남자 30대가 특히 낮음
 - : 지금의 현실을 남녀 20대와 남자 30대가 더욱 냉소적으로 본 결과로 보임

□ 참여의향 낮음 & 비현실적 제안, 계층별 응답 현황

- 일회용품과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참여의향이 낮고, 비현실적 제안(현실적 50% 미만)으로 꼽힌 제안은 '재활용 불가능 제품, 추가비용 지불'임
- 이를 계층별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은데, 계층별로 응답내용이 매우 다름
- 참여의향이 높고 현실적인 제안이라는 계층도 다수 존재하는데, △여자 20대, 남녀 30대 △자영업자들이 그들임
 - 아래 그림에서 참여의향과 현실적 제안의견 모두가 50% 이상이면 파란색 원으로 표시함
- 국민전체와 같이 참여의향이 낮고 비현실적 제안이라고 응답한 계층은 △남자 20대, 50대, 60대 이상 △주부, 화이트칼라 등임
 - 아래 그림에서 참여의향과 현실적 제안의견 모두가 50% 미만이면 붉은색 원으로 표시함
- 한편, 참여의향이 낮지만 현실적 제안이라고 생각하는 계층은 △40대 △학생, 블루칼라 층임
 - 아래 그림에서 참여의향과 현실적 제안의견 중 하나가 50% 미만이면 분홍색 원으로 표시함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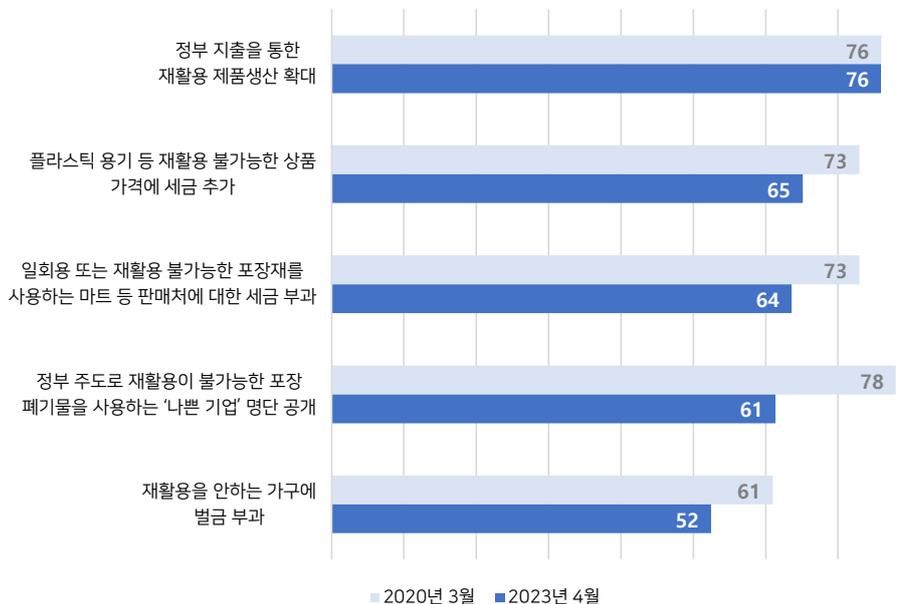
- ☑ 다른 제안들은 국민전체 여론과 계층별 여론이 같은 방향을 유지했지만, '재활용 불가능 제품, 추가비용 지불'의 경우 계층별 여론이 매우 다른 특징을 보임
- ☑ 핵심은 재활용 불가능 제품 구매시 일종의 '페널티'로서 경제적 부담을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인데, 여자 20대와 남녀 30대, 자영업자는 그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 그 외 계층은 경제적 부담을 수용할 의사가 없고, 현실성도 낮다는 생각임
 - : 학생 계층은 예외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수용할 의사는 없지만, 현실성은 높다고 생각함
 - : 자신의 소비 행동이 환경에 문제를 초래할 때 기꺼이 '페널티'를 수용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 의식이 뚜렷한 것으로 이해됨

▶ 포장폐기물 줄이기 정책 평가

□ 포장폐기물 감축 정책, 모두 '효과적'으로 생각

- 우리 국민들은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각국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 각각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후 ‘효과적이다’, ‘효과가 없다’ 중 응답받은 결과임
- 2020년 3월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모든 정책에 대해 ‘효과적이다’는 응답이 50%를 넘음
 - 다만, ‘효과적이다’는 응답 비중이 2020년 3월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락함
- 2023년 4월 조사결과, ‘효과적이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온 정책은 ‘정부 지출을 통한 재활용 제품생산 확대’로 76%를 기록함
- 다음은 ‘플라스틱 용기 등 재활용 불가능한 상품 가격에 세금 추가’(65%), ‘일회용 또는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마트 등 판매처에 대한 세금 부과’(64%), ‘정부 주도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 폐기물을 사용하는 ‘나쁜 기업’ 명단 공개’(61%) 등임
- ‘재활용을 안하는 가구에 벌금 부과’는 52%로 가장 낮게 나타남

포장폐기물 감축 정책별 긍정평가율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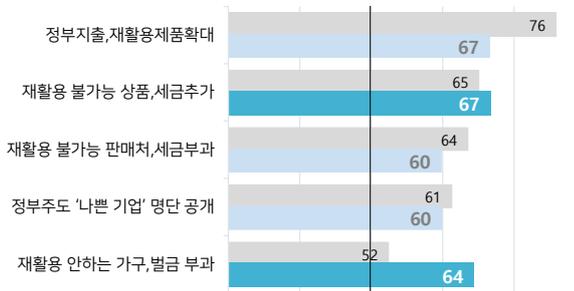
Kstat Point

- ☑ 본 보고서 앞부분의 ‘플라스틱 쓰레기 책임성 평가’에서 국민들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여전히 많은 데 대해 기업(생산·판매)이나 소비자 보다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성을 많이 지적함
- ☑ 이러한 의견의 연장선에서 국민들은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부정책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됨
- ☑ 정부 입장에서 소비자(국민)만을 대상으로 한 환경정책에서 생산·유통단계의 관리·감독과 분리수거 이후의 재활용 기술개발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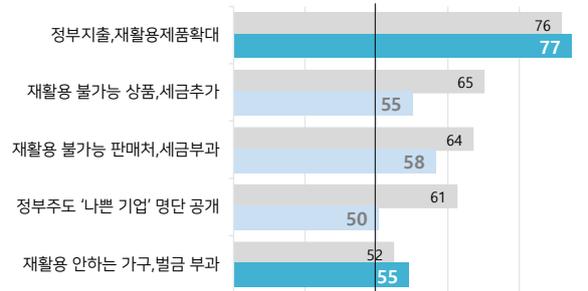
□ 성/연령별 : 2030세대 중에서 여자 30대 가장 긍정적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먼저 2030세대의 경우 여자 30대가 가장 긍정적임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 전체 신뢰도 점수이고, 검은 세로선은 50% 기준선임
 - 국민 전체보다 높은 수치는 짙은 푸른색 막대이고, 낮으면 옅은 색으로 표시함
- 여자 30대는 국민 전체보다 높은 수준으로 '효과적이다'고 응답한 정책이 3개임
 - 남자 20대와 여자 20대는 국민 전체보다 높은 긍정 평가율을 기록한 정책이 2개임
 - 남자 30대는 모든 정책에 대해 국민 전체보다 낮은 긍정 평가율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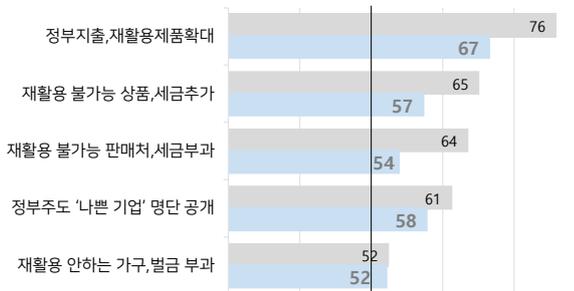
포장폐기물 감축 정책별 긍정평가율 : 남자 20대
(자료:케이스탯,2023.04.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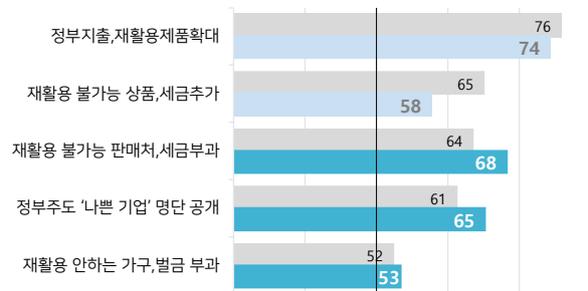
포장폐기물 감축 정책별 긍정평가율 : 여자 20대
(자료:케이스탯,2023.04.09조사,단위:%)



포장폐기물 감축 정책별 긍정평가율 : 남자 30대
(자료:케이스탯,2023.04.09조사,단위:%)



포장폐기물 감축 정책별 긍정평가율 : 여자 30대
(자료:케이스탯,2023.04.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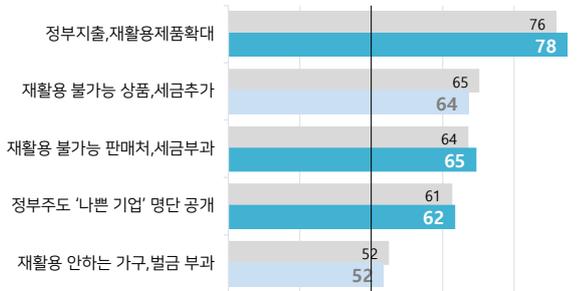
Kstat Point

- ☑ 포장폐기물 감축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 2030세대 모두 50% 이상으로 긍정 평가율을 기록함
 - : 즉, 정부가 포장폐기물 감축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라고 있음
- ☑ 특히 여자 30대의 긍정 평가율이 가장 높아, 이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남자 30대의 긍정 평가율은 모든 정책에 걸쳐 국민 전체보다 낮은 긍정 평가율을 보여, 상대적으로 정부 노력에 회의적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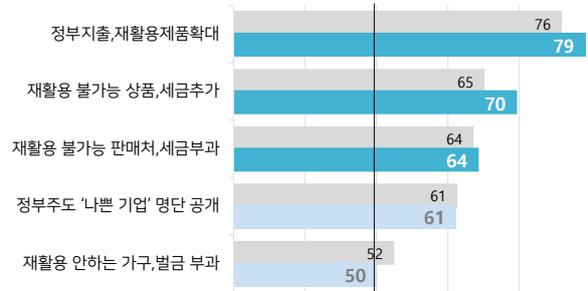
□ 4060세대, 2030세대보다 정부정책 긍정평가

- 포장폐기물 감축 관련 정부정책에 대해 2030세대보다 4060세대가 더 긍정적임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 전체 신뢰도 점수이고, 검은 세로선은 50% 기준선임
 - 국민 전체보다 높은 수치는 짙은 푸른색 막대이고, 낮으면 옅은 색으로 표시함
 - 또한 긍정 평가율이 50% 미만이면 붉은색 막대로 표시함
- 특히 60대이상은 거의 모든 정책에 대해 국민 전체보다 높은 긍정 평가율을 기록함
 - 다만, 60대이상은 '재활용 안하는 가구, 벌금 부과'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보다 낮은 49%로 부정적임
- 4050세대 역시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 국민 전체보다 높거나 유사한 긍정 평가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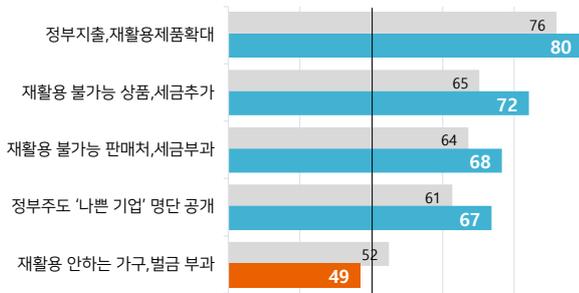
포장폐기물 감축 정책별 긍정평가율 : 40대
(자료:케이스탯,2023.04.09조사,단위:%)



포장폐기물 감축 정책별 긍정평가율 : 50대
(자료:케이스탯,2023.04.09조사,단위:%)



포장폐기물 감축 정책별 긍정평가율 : 60대이상
(자료:케이스탯,2023.04.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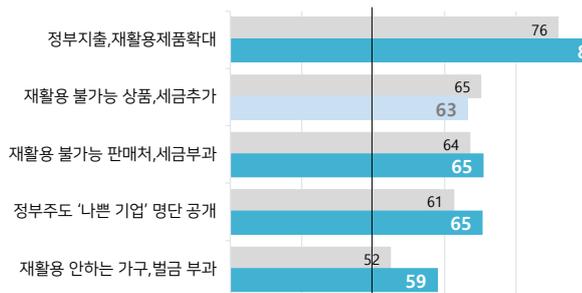
Kstat Point

- ☑ 포장폐기물 감축 관련 정부정책에 대해 2030세대보다 4060세대가 더 긍정적임
 - : 이는 이들 세대가 정부의 정책적 역할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 2030세대는 상대적으로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낮고, 정부정책 실효성에도 비판적인 특성이 있음
- ☑ 즉, 정부정책에 대해 4060세대가 더 긍정적이라고 해서 4060세대의 환경의식이 더 높다고 등치시키는 것은 무리임
 - : 예를 들어, '재활용 안하는 가구, 벌금 부과'에 대해서는 2030세대의 긍정평가율이 더 높음
- ☑ 한편,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의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임
 - : 현재까지의 정부 정책은 포장폐기물 감축에 대한 기업의 활동을 강제하고, 감독하는 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국민들은 이러한 정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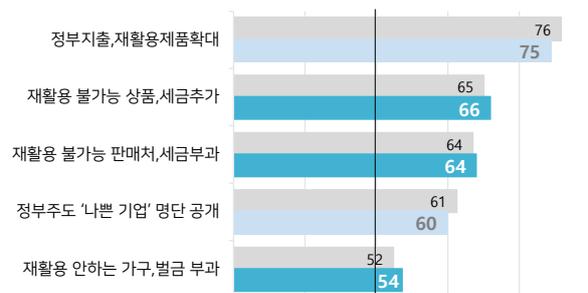
□ 삶 평가지수별 : '번창중' 긍정평가를 특히 높아

- 삶 평가지수별로 살펴보면, '번창중' 계층의 정책 긍정평가가 가장 높는데, 이들은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 국민 전체보다 높은 긍정평가를 기록함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 전체 신뢰도 점수이고, 검은 세로선은 50% 기준선임
 - 국민 전체보다 높은 수치는 짙은 푸른색 막대이고, 낮으면 옅은 색으로 표시함
 - 또한 긍정평가가 50% 미만이면 붉은색 막대로 표시함
- '고군분투중'은 국민 전체와 거의 비슷한 긍정평가를 보임
 - 수치 자체는 국민 전체보다 높거나 낮지만, 거의 비슷함
- '고통스러움' 계층 역시 국민전체와 거의 비슷한 긍정평가를 보이지만, '재활용 안하는 가구, 벌금 부과'에 대해서는 46%의 낮은 수치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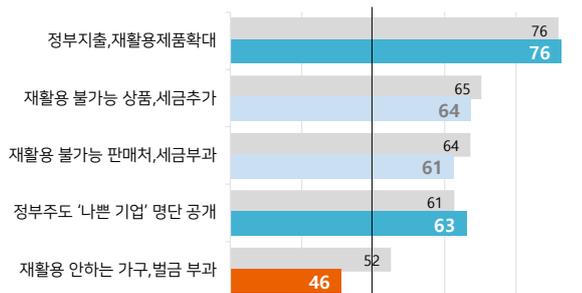
포장폐기물 감축 정책별 긍정평가율 : 번창중
(자료:케이스탯,2023.04.09조사,단위:%)



포장폐기물 감축 정책별 긍정평가율 : 고군분투중
(자료:케이스탯,2023.04.09조사,단위:%)



포장폐기물 감축 정책별 긍정평가율 : 고통스러움
(자료:케이스탯,2023.04.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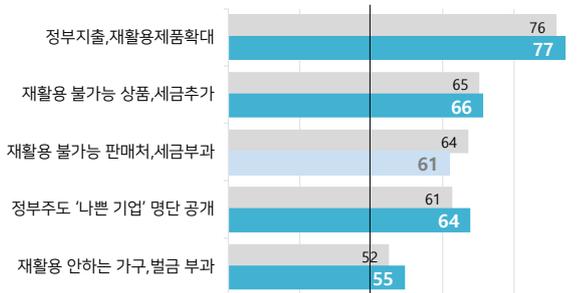
Kstat Point

- ☑ 자신의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번창중' 계층은 정부정책에 대해 매우 긍정적임
 - : 그러나 '고군분투중'과 '고통스러움' 계층은 국민전체 의견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 경제상황과 포장폐기물 감축 정책과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 다만, '재활용 안하는 가구, 벌금 부과'에 대해 '고통스러움' 계층만 50%에 미치지 못하는 긍정평가를 보여,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냄
 - : 즉, 환경관련 정책 중 개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방식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제상황이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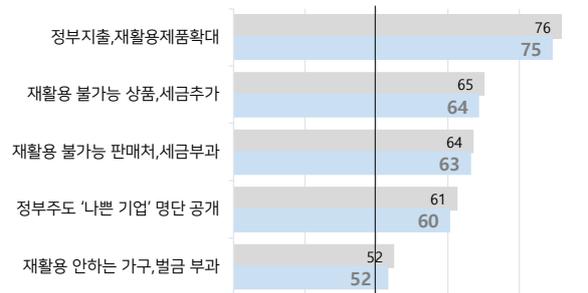
□ 주관적 이념별, 큰 차이 없어

- 주관적 이념별로 살펴보면 이념성향층 모두 국민전체와 유사한 수치를 기록함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 전체 신뢰도 점수이고, 검은 세로선은 50% 기준선임
 - 국민 전체보다 높은 수치는 짙은 푸른색 막대이고, 낮으면 옅은 색으로 표시함
- 세부적으로는 보수·진보층이 국민 전체보다 높은 긍정평가를 기록하고, 중도층은 낮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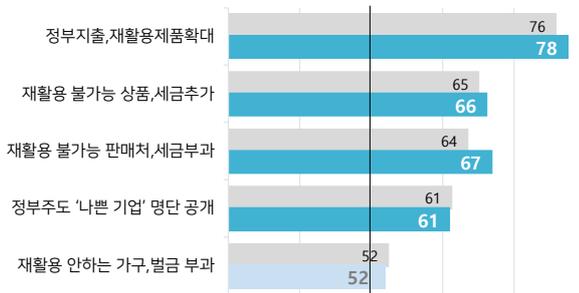
포장폐기물 감축 정책별 긍정평가율 : 보수층
(자료:케이스탯,2023.04.09조사,단위:%)



포장폐기물 감축 정책별 긍정평가율 : 중도층
(자료:케이스탯,2023.04.09조사,단위:%)



포장폐기물 감축 정책별 긍정평가율 : 진보층
(자료:케이스탯,2023.04.09조사,단위:%)



Kstat Point

- ☑ 포장폐기물 정부 정책에 대한 이념별 차이는 거의 없는데, 이러한 양상은 다양한 사회조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지점임
 - : 즉, 보수층과 진보층의 대립은 정치적 대립일 뿐 다른 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음
- ☑ 한편, 각종 사회조사에서 보수·진보층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데 비해 중도층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면이 있음
 - : 이에 따라 중도층은 국민전체 수치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음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74,75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74호와 75호는

각각 5월 11일(목요일), 25일(목요일)에 발간되며,

케이스탯 2023년 5월 사회지표는 5월 18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